

분류	구역공과
제목	전도자와 복음(4)- 참 복음, 참 평안, 참 열매
성경	갈라디아서 5:22-23
일시	2012년 1월 28일
장소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주제어	

♣ **녹취 자료** ♣

♣ **성경 말씀(갈라디아서 5:22-23)**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1.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소유하고, 누리는 자는 참 평안이 회복됩니다.

- (1)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평안이 누리집니다. (요14:27)
- (2) 종교생활하면 무거운 짐과 수고가 참 평안으로 바뀝니다. (마 11:28-30)
- (3)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1:1-13)

2. 성령충만을 계속 기도하면 참 열매가 나타납니다.

- (1) 하나님에 대한 열매 (갈5:22)
 - ① 사랑
 - ② 화평
- (2) 인간에 대한 열매 (갈5:22)
 - ① 오래 참음
 - ② 자비
 - ③ 양선
- (3) 자신에 대한 열매 (갈5:23)
 - ① 충성
 - ② 온유
 - ③ 절제

3. 성령의 역사

- (1) 성령 개인을 변화 시킵니다. (행2:1-13)
- (2)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행2:41-47)
- (3)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5:22-23)

(The end)

♣ **서론**

▶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5주이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을 보고 참 복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참 평안, 참 열매이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하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보고 따라가시면 된다.

- (1) 눈에 보이는 것- 무리
 - ▶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을 하셨다.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주로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
 - 1) 축제- 축제 분위기로,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많은 것을 하셨다.
 - 2) 축복- 그리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셨다.
 - 3)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만나시면 치유하시고,
 - 4) 어려운 당한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기도 하시고,
 - 5)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기도 하고, 우리말로 하면 구제하기도 하셨다. 이런 것을 예수님은 눈에 보이게 많이 하셨다.

- (2) 눈에 안 보이는 것- 제자
 - ▶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또 하셨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늘 머릿속에 두어야 한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주로 무엇인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셨다.

▶ 그래서 우리 중직자 분들도 어렵게 안 해도 이 두 가지를 늘 명심하셔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축복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한다. 그런데 이것만 알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하시면서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제자훈련을 계속해나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이런 일로 시험 들고, 저런 일로 시험 드는 게 많은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 시험에 들 이유가 없다. 또 교인들 가운데, 중직자 가운데는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데(위의 (1)번) 시험이 많이 든다. 제가 이때까지 몇 십 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보니까 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이런데 치우쳐서 시간을 다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려고 한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못 보는 것이다. 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없을까? 하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 많은 문들이 열린다.

▶ 말하자면 이 부분은(앞의 (1)번) 많은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마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앉으시니 무리와 제자들이 나아온지라고 되어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다가 보면 시험 들 것도 있는데 시험들 필요가 없다. 교회에는 무리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시간 지나면 제자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면 굉장히 여유 있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또 우리가 어느 때에 생을 결어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이 나온다. 나는 전혀 공부도 못 했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는 사람도 교회에 다닌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번 부분들은 당연히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쉽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어떤 사람은 너무 상처 받아서 난리더라. 왜 상처받는지 가만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받더라. 그러면 본인 손해다. 또 어떤 교회들은 막 싸우는데 보니까 주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운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축복들은 다 놓쳐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었는데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키는 이 두 개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가짜라는 말이 아니다. 이런 부분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하셨지만 진짜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구원받은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할 때는 (2)번이 더 중요하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먼저 봐야 하기 때문에 (2)번을 깨달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은 중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알아야 하고,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었다.

▶ 제자들을 불러 가지고 뭘 하셨느냐?
 많이 하셨지만 한 7가지를 하셨다.

- 1) 모집x- 부르심(마4:19)
 - ▶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모집하신 것이 아니다. 모집하는 것은 (1)번에서 하셨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마 4:19,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간단한 말처럼 보이지만 다락방 하는 방법, 지교회 하는 방법 두 가지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하는데, 물론 어려우면 시험할 수 있는데 그 속에 빠졌다는 것은 이걸 제대로 못 본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막 모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짜다. 예수님은 사람을 막 모아놓고 병도 고치고 그랬지만 그 중에서 제자는 부르신 것이다. 그런데 이 쉬운 것을 다락방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틀리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조건 많이 모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많은

손해를 본다. 우리가 주일학교, 각 기관, 각 선교국이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2)번의 전략을 써 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못 알아듣는다. 신학은 처음에 할 때 막 몰려드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안 된다는 것을 단 한명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이 두 가지는 전도에도 항상 쓰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사업도, 장사도 이렇게 해야 한다. 뭔가 보이는 것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2)다수x- 소수 변화(마17:1-9)

▶예수님께서서는 다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소수를 불러다가 변화시켰다. 제자 12명.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중에서도 베드로. 이런 전략을 쓰셨다. 왜 그런가? 소수 변화 없이는 다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17:1-9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그 중요한 자리에 데려가셨다. 열른 보면 사람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악용한다. 예수님께서도 소수를 변화시키셨으니깐 끼리끼리 모여서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만 이해하면 되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다.

3)지식x- 동고동락(막3:14)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것을 지식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등 모이면 말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같이 즐거움 것도 보고 고난당하는 것도 보면서 같이 동고동락하셨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제일 처음부터 막3:14절에 불러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4)요구x- 보여주심(막1:35)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셨다.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도 좋지만 막1:35절에 본인이 직접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제자 찾은 것, 교인들을 부르는 것, 병 고치는 것도 다 직접 보여주셨다.

5)계급x- 분여(요14:16-17)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시간 가면서 주셨다. 많은 사람들은 계급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 설명을 가장 많이 하셨다. 요14:16-17,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너희와 있으면 지금밖에 같이 있을 수 없지만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하면 모든 사람에게 같이 할 수 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제일 키를 여기에다가 두셨다. 그래서 성령을 보면서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셨다. 요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나왔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또 하셨다. 행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하셔야 한다.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동시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다. 이것을 보고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국말로 분여라고 표현했다. '분'은 나누어질 '분'자다.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다. 사실 이 얘기를 예수님은 제일 중심적으로 많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해보시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너무 심하게 할 필요도 없다. 왜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6)직업x- 대리인(대사)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네 직업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직업이 되어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가는 대리인이라고 하셨다. 대사이다. 마10:40-42,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에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그러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주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가는 대리인, 대사이다. 굉장하지요?

7)성공x- 십자가(천국 배경, 요14:1-3, 행1:3)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은 성공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성공을 얘기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면서 뭘 얘기하셨는가? 머리 나쁜 놈들은 다 도망갔다. 그리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즉시 도망가 버렸다. 아니 성공을 얘기해야 다 올 것이 아닌가? 성공을 얘기해야 성공하려고 다 몰려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서 성공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끔찍한 것을 얘기했다. 십자가 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르다. 그러면 서 계속적인 천국 배경을 설명했다. 이것이 다르다. 요14:1-3에서도 역시 천국 배경을 얘기했다. 행1:3절에도 마지막에도 천국 배경을 얘기했다. 이걸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힘이다.

▶여러분이 지금 중직자가 되셨는데 다 알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것을 그대로 이해하려면 힘드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무리에게도 신경을 쓰시고 진짜로는 제자에게 초점을 맞추셨다.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제자는 놓치고 무리 때문에 시험 들기 때문이다. 목회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제자 보는 눈은 없고 무리 보는 눈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목회 실패한다. 사실상 목회뿐만 아니라 식당을 해도, 장사를 해도 사실은 육신적인 것이라 그렇지 원리는 똑같다.

한번은 제가 혼자 식당에 갔다. 간단하게 먹으려고 음식을 시키

니까 안 된다는 것이다. 왜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이걸 2인분 이상만 판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2인분을 달라고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나쁘지 혼자이지 않느냐고 되물더라. 그러니까 저런 머리를 가지고 식당을 하면 식당 문은 다 닫는다. 저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손님이 어떤 손님이든 상관없이 왔을 때 절반을 달라고 해도 저는 주겠다. 그렇지요? 어떤 할머니는 조금 먹을 수 있으니 1/3만 달라고 해도 저는 주겠다. 그러니까 참 머리가 나쁘다 싶다.

이것은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3년 공생애 키이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안에 많은 무리의 교인들이 온다. 아니 이것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시험 드는 중직자 같으면 전혀 영안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교회는 모자란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훌륭한 사람도 온다.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축복을 모르니까 이것(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좋아한다.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축복을 모르니까 가져 축복을 붙잡고 매일 시험 들고 흥분하고 좋아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무식하지 않다. 서울에 유식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많다. 그런데 밤낮없이 싸운다. 저는 그 사람들이 단연코 무식하다고 생각한다. 무식할 정도가 아니고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영안이고, 육안이고 전혀 못 뜬 것이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지식인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것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 이것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짜 인생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는 다 못해도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의 제일 큰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장 큰 약속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몇 가지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참 복음이다.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참 평안이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참 평안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다섯 번째 주일 공과의 1번이다.

1.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소유하고, 누리는 자는 참 평안이 회복됩니다.

- (1)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평안이 누리집니다. (요14:27)
 - (2)종교생활하던 무거운 짐과 수고가 참 평안으로 바뀝니다. (마 11:28-30)
 - (3)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1:1-13)
- ▶여러분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다. 평안의 짐으로 하나님이 바꾸어주시는 것이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탈해라 이런 것이 아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아니 인간이 지금 귀신들려 있는데 무슨 해탈이 되는가?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 축복만 참으로 누려도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금방 응답이 온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다.
- 그러면 열매가 나오겠지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와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오게 되어있다.

2.성령충만을 계속 기도하면 참 열매가 나타납니다.

- (1)하나님에 대한 열매 (갈5:22)
 - ①사랑
 - ②희락
 - ③화평
 - (2)인간에 대한 열매 (갈5:22)
 - ①오래참음
 - ②자비
 - ③양선
 - (3)자신에 대한 열매 (갈5:23)
 - ①충성
 - ②온유
 - ③절제- 응답중의 응답이 나를 조절하는 것이다.
- ▶열매가 오는데 그 열매가 갈5: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얘기들이 쭉 나온다.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온다.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우리가 열매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매들이 나온다. 그 세 가지가 뭐가? 사랑, 희락, 화평이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나에 대한 열매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참된 희락, 기쁨이 온다. 비슷한 말이지만 화평이 온다. 화평과 희락은 조금 다르다. 희락은 내가 조금 나타내는 부분이라면 화평은 내가 속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다.
- 이때부터 사람에 대한 열매 세 가지가 나온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오래 참음이다. 이걸 억지로 참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면 오래 참음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것이 자비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된다. 그것이 양선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를 맺는다. 뭔가? 충성, 은유, 절제다. 이걸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내 자신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고 나왔다. 절제는 뭘 안 한다는 말이 아니다. 제일로 응답 중의 응답, 열매가 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를 조절 못 한다. 눌러있거나 아니면 너무 빛나가 있거나 그렇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3. 성령의 역사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같지만 다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되어있다.

- (1)성령 개인을 변화 시킵니다. (행2:1-13)
- (2)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행2:41-47)
- (3)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5:22-23)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전혀 나이도 많고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변화가 일어난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변화가 안 일어난다. 만약에 많이 배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버리면 굉장한 문이 열리는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문이 열린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전도문이다. 전도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 놓으시면 정확하게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이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하루라도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서론은 다 외울 필요 없이 두 가지만 알면 된다. 무리 속에 제자가 있다. 그리고 또 이 제자가 무리를 살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며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온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자꾸 비평하고 시험 들고 그런다. 그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못 봐서 그렇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 가서 탈북자를 만나도 그 속에 제자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제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무리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해석들이 다 나온다. 여러분들은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는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있다.

▶그러면 실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 예배하는 동안에 체험해보라.

- (1)문제- 여러분에게 병든 부분이나 문제 있다면 정말로 그 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나타나도록 기도해보라. 이것을 기도수첩이나 공과책에 기록해 놓으라.
- (2)언제- 기록해놓으라는 말은 이것이 언제 응답이 오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다. 한번 해보라.
- (3)어떻게-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할 게 있다. 어떻게 응답이 왔는가를 확인해 보라. 정확하게 온다.

▶여러분이 이것을 자꾸 확인하게 되면 굉장한 힘이 온다. 그러면 이 축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다. 여러분이 정시기도를 왜 하는가? 여러분 사업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병든 자들이 왜 집중기도를 하는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 응답이 오는지 확인해보라. 즉시 오는 것도 있지만 언제 오는지 확인해보라. 그리고 어떻게 오는가 한번 보라.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으면 메시지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1부, 2부 예배를 드리면 깜짝 놀란다. 거기에 또 여러분에게 맞는, 보완되는 응답이 또 오는 것이다. 메시지를 10개 들으면 10개가 중첩되는 것이 아니고 보강이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책을 읽거나 많은 것을 보게 되면 또 다르게 오는 게 아니고 더 완벽하게 응답이 오게 된다.

전국, 세계에 있는 중직자분들이 오늘 이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국, 세계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막혔던 모든 어두운 부분에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막혀있는 모든 불신앙의 담이 오늘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치유되는 큰 축복의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	
① http://www.jcking.net ② http://www.rutc.com	
총 국 장: 김성호 목사 (☎011-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 (☎010-5375-9383 ✉3759383@paran.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	